



아이야 티피꾼



김아림

태국 강자 티피꾼 vs 장타자 김아림

국내 메이저대회 격돌

KLPGA 한화클래식 24일 개막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아이야 티피꾼(태국)이 24일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한화클래식(총상금 17억원)에 출전한다.

한화클래식 대회 조직위원회는 "티피꾼이 올해 대회 특별 초청 선수로 나온다"고 16일 밝혔다.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한화클래식 올해 대회는 24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춘천시 제이드밸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현재 세계 랭킹 12위인 티피꾼은 지난해 LPGA 투어 신인상을 받았으며 두 차례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다.

2021년에는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 올해의 선수와 신인상을 석권했고, 2022년에는 세

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톱 랭커다.

티피꾼은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 초청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선수들과 경쟁하게 돼 영광"이라며 "대회장이 코스 난도가 높아 샷 집중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승을 목표로 한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또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화큐셀 소속 선수들인 김아림, 지은희, 김인경, 신지은도 출전하고, 일본여자프로골프에서 뛰는 이민영도 나온다.

한화큐셀 이구영 대표이사는 "하반기 첫 메이저 대회인 만큼 KLPGA 대표 선수들은 물론 외국에서 활약 중인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들을 초청했다"며 "이들이 명성에 걸맞은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순우, US오픈 테니스 본선 직행하나

2명 기권...예비명단 1순위로

한국 남자 테니스 간판 권순우(당시시정)가 6개월 간의 복귀 무대인 메이저 대회 US오픈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단식 본선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라일리 오벨카(미국)가 기권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16일 보도했다.

전날에는 역시 단식 본선에 출전하기로 돼 있던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스페인)가 기권했다.

이로써 본선 예비 명단 3순위에 있던 권순우가 1순위로 올라섰다.

현재 본선 출전 명단에 있는 선수 중 한 명만 기권해도 권순우는 본선에 직행한다.

권순우는 지난 2월 카타르 엑손모바일오픈 이후

아깨 부상 회복에 집중해왔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US오픈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올해 3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은 28일부터 미국 뉴욕의 빌리 킵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다.

오벨카는 지난해 8월 워싱턴 대회 뒤 엉덩이 등 여러 부위를 다쳐 코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년 연속으로 US오픈을 거르게 됐다.

카레노 부스타는 팔꿈치 부상 여파로 올해 4경기밖에 치르지 못했다.

올해 처음 출전한 호주 애들레이드 2차 대회에서는 1회전에서 권순우에게 탈미를 잡혔다.

이들에 앞서 닉 키리오스(호주), 안레나르 슈트루프(독일), 미카엘 이메르(스웨덴) 등이 이번 대회에서 기권했다. /연합뉴스

2년만의 미국 무대 조코비치 복식 1회전 탈락

신시내티오프 테니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2년 만에 미국에서 치른 경기에서 패했다.

조코비치는 같은 세르비아 출신인 니콜라 피치치와 짝을 이뤄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신시내티오프(총상금 660만 달러) 남자 복식 1회전에 출전해 제이미 머리(영국)-마이클 비너스(미국) 조에 0-2(4-6 2-6)로 졌다.

이는 조코비치가 2021년 9월 US오픈 단식 준우승 뒤 처음으로 미국에서 치른 경기였다.

지난해 1월 호주에 입국했다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사실상 추방돼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조코비치는 같은 이유로 미국 땅도 밟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미국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외국인도 자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방역 방침을 변경하면서 올해 미국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경기는 조코비치가 워블던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에게 패한 뒤 처음으로 치른 실전이기도 했다.

조코비치는 이번 신시내티오프 단식에서 결승까지 살아남으며 알카라스와 우승 트로피를 두고 '리턴 매치'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단식 2회전에 직행한 조코비치(2위)의 첫 상대는 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23위·스페인)로, 경기는 16일 치러진다.

조코비치는 28일 개막하는 US오픈에서는 통산 4번째 우승과 더불어 24번째 메이저 대회 정상 등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파도 속으로 브라질 서퍼가 16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타히티주 티후푸우에서 열린 WSL 시세이도 타히티 프로 서핑 대회에서 파도를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송정초 탁구, 전국대회 단식·단체전 우승

교보생명컵 꿈나무 대회

광주송정초등학교 탁구부가 전국 꿈나무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광주송정초는 최근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9회 교보생명컵 꿈나무 탁구대회에서 3학년 단식과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탁구 꿈나무를 위해 펼쳐진 이번 대회는 학년별로 남녀단식 경기가 진행되며 단체전은 6학년을 제외한 1~5학년의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펼쳤다.

강도현은 이번 대회 3학년부 출전에 4강에서의 령남산초 박경민을 다쳐 세트스코어 3-0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진 대전동문초 주어진과의 마지막 대결에서도 강도현은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 단 한세트도 내주지 않고 3-0 완승을 거뒀다.

강도현은 지난해 1~2학년부 단식 우승에 이어 이번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 같은 연령대 최고 자리를 지켰다.

광주송정초는 또 이번대회 남자단체전 4강전에서 대구대실초를 4-0으로 누르고 결승 무대에 섰다.

이어 대전동문초와의 단체전 결승 1·2대결 단식에서 잇따라 패한 광주송정초는 3대결 복식에서 광천우·한준서조가 세트스코어 3-1로 승기를 잡



광주 송정초 탁구부가 지난 11일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9회 교보생명컵 꿈나무 탁구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탁구협회 제공>

은 뒤 4대결 복식에서 김민찬-강도현 조도 승기를 가져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강도현과 김민찬은 5·6대결 단식에서도 잇따라 승리해 광주송정초는 최종스코어 4-2로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송정초 관계자는 "여름방학에도 쉬지 않고 맘을 들린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 남은 대회에서도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바둑 신진서, 생애 첫 응씨배 우승 도전

21~24일 중국 세키와 결승 3번기

부동의 한국 바둑랭킹 1위 신진서(23) 9단이 생애 첫 응씨배 우승에 도전한다.

신진서는 21~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9회 응씨배 세계프로바둑선수권대회 결승 3번기에서 중국의 세키(23) 9단과 대결한다.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돼 '바둑 올림픽'으로 불리는 응씨배는 1988년 대만 재벌 임창치가 창설한 대회다. 우승 상금 40만달러로 바둑대회 중 가장 상금이 많고 역사도 가장 오래됐다.

창설 당시 일본과 중국에 밀려 바둑 변방국이었던 한국은 응씨배를 통해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섰다.

조훈현-서봉수-유창혁-이창혁 9단이 1회부터 4회까지 4연패를 이룩한 한국은 6회 대회에서 다시 최철한 9단이 정상에 오르면서 최다 우승국이 됐다.

하지만 한국 바둑의 1인자 계보를 이었던 이세돌 박정환 9단은 아쉽게 응씨배와 인연을 맺지 못하면서 7·8회 대회 때는 중국에 우승컵을 넘겨줬다.

이제는 세계최강자로 불리는 신진서가 응씨배

를 되찾아올 시기가 됐다.

2012년 입단 이후 응씨배 본선에 첫 출전한 신진서는 이번 대회 1회전인 28강전에서 세알하오 9단, 16강에서는 판팅위 9단, 8강에서는 구쥘하오 9단, 준결승에서는 자오원위 9단을 2-0으로 완파하는 등 중국 기사들을 차례로 꺾고 결승까지 진군했다.

결승전 전망은 4개월 연속 한국 랭킹 1위를 지키는 신진서가 중국랭킹 21위인 세키에 확실하게 앞선다는 분위기가.

다만, 신진서가 최근 세계대회에서 다소 부진하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응씨배 결승전은 1회부터 8회 대회까지 5전 3승제로 열린다 이번에는 3전 2승제로 축소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오멘하이머
- 2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바다 탐험대 옥토포트 어보브 앤 비온드 : 육지 넘어 하늘까지!
- 3관 밀수
- 4관 오멘하이머, 보호자
- 5관 오멘하이머, 보호자
- 6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9관 밀수, 비공식작전
- 7관 새내기들 달짝지근해: 7510, 보호자
- 8관 새내기들 엘리멘탈, 메가로돈 2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 III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2023-08-26(토) 17: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